

오피니언



새해 아침에

신 달자



“다들 힘내!” 하며 한바탕 웃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적으로 강하고 외적으로 부드러운 결코 주저않는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자! 새해는 더 웃으며 다들 힘내시지요.

새해다. 새해는 언제나 설레임이 있다. 나에게 복을 빌어 준 새해 인사가 많았다. 덕담 또한 적지 않다. 나는 그 복을 다 쌓으면 준 재벌쯤은 될 것 같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쉽게도 복을 주었다. 우리들의 새해 인사는 정말 훈훈하고 아름답다. 얼마나 우리가 복에 목말랐으면 새해가 되면 복으로 모든 인사를 대신 하는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을 모두 아쉬워하고 아쉬운 만큼 새해에는 기쁨도 좀 풍족하게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복은 항상 우리곁에 있어

그런데 복은 뭐가? 사실은 우리들의 지난 생활에 복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진다. 복이라고 느끼지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은 민망해서 사라지는게 아닐까.

복은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에게 머문다. 복은 사람보다 영민하고 눈치가 빨라서 자신을 우대하거나 친절한 사람에게 웃으며 가고 자신을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복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의 성질이라면 성질이다.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인간의 속담도 복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복이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복은 아침이 누구에게 오든 누구에게나 왔었다. 그러나 아는 척

복을 알아 챙기는 일, 내 복이 여기 있었구나 알아주는 인사상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 ‘왜 이렇게 진저리나게 복이 없는지...’ 하고 말하면 복은 진저리치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머나 내게 이런 복도 있었네’하고 감탄하면 좋고 있던 복이 ‘나 여기 있었어’ 하고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입으로만 복을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복을 발견하고 아는 척 해 주는 습관부터 길러야 하지 않을까. 왜 새해는 하얀 흰빛의 빛깔로 내게 오는지 모른

희망 종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반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슨 복이냐고 나는 복이라고는 없다고 하면 복은 물 돌 곳을 몰라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고통만을 안고 어찌 사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옆에 복이 있었다. 이 세상에 오는 고통은 반드시 좋은 것과 함께 온다. 고통과 씨름하며 싸울 때 좋은 복은 심심하고 배고고 고파 죽어 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는 척도 하지 않는데 왜 복이 그곳에 머물렀는가. 우리가 이와 같다면 새해에도 복은 우리 옆에서 굶어 죽을지 모른다. 복을 비는 일보다 내 옆에 있는

다. 어쩌면 그 흰빛에 자기 나름의 새로운 희망의 도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의미로 새해는 흰빛의 백지로 우리에게 오는지 모른다. 지나간 시간은 검게 그늘지고 새해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며 기대하는 시간이므로 그것은 빛나고 희고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지 모른다. 새해가 빛으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새로운 날은 분명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새

해는 희망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어제 절망으로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내일이 있다는 것, 그 단 하나의 희망으로 포기를 도전으로 바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우리들의 삶은 피아노의 건반처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음표 같은 것인가. 그런가 너무 높은 음은 목에 손상은 가지 않을까. 제아무리 희망이 좋다고 한들 목이 터져라 부르면 희망은 오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안다. 희망은 부른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작은 복을 사랑해 주면 그 복은 자라 큰 복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덜 불행할지 모른다.

한바탕 웃음으로 “다들 힘내!”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연말 강의를 갔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 가난한 직원들과 소주를 한잔씩을 했는데 사장님이 소주잔을 들고 외쳤다 “내 힘들다!” 라고, 직원들이 눈물 섞인 소리로 다시 외쳤다 “다들 힘내!” 간단한 말도 이렇게 거꾸로 읽으니 이렇게 말이 힘이 되어 버린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복을 받기보다 “다들 힘내!” 하며 한바탕 웃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적으로 강하고 외적으로 부드러운 결코 주저않는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자! 새해는 더 웃으며 다들 힘내시지요. <시인>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권

도시와 삶

일자리와 생활

지방과 생활

2010년과 남도역사인물



김 세 권

2010년은 남도 역사 문화에 있어 민주화와 인권, 한일 관계, 호남정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해이다. 이번 주말에는 남도인물 흔적 찾기를 하려다.

2009년 10월 26일은 어떤 날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의사 안중근이 국권 찬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에서 6발의 총알로 저격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2009년에는 뮤지컬 ‘영웅’이 공연되는 등 안중근을 기리는 많은 행사가 있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남도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새해에 기억해야 할 남도역사인물은 누구인가?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30년이 되는 해이다. 5·18민주화운동 하면 생각나는 이가 윤상원이다. 그는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죽었다. 또한 그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82년에 5·18 묘역에서 치러진 들꽃야화 동지 박기순과의 영혼결혼식 때 부른 진혼가가 이 노래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꺼져나서 외치는 뜨거운 합성/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라라/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라라 2010년은 한일병합 100년이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는 치욕을 맞는다. 며칠 뒤 구례군 광의면에 사는 한 선비가 절명시 4수를 쓰고 자결하였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사죄하더라도 하듯이.

새와 짐승 슬피 울고 강산도 쩡그리니/ 무궁화 이 강산 망하고 말았구나/등불 아래 책을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배운 사람 구실 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그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1855-1910)이다. 그는 ‘매천야록’을 쓴 역사가이고, 의기 논객, 충정공 민영환, 한말 의병장 고관송의 충절을 읊은 시인이었다. 국치(國恥)로 황현이 목숨을 끊은 지 몇 달 뒤, 영랑군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유난히 전통문화에 심취하여 문화동호인 활동을 하다가 육고를 치렀다. 1년 반의 육공 생활동안 여유당전서 등 동양사상서를 독파하였다. 해방 이후 그는 다산 정약용 연구의 태두가 되었다. 그가 한국철학의 선구자 현암 이을호(1910~1998)이다. 그의 호남학에 대한 열정, 호남 문화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퇴직 후에도 국립광주박물관장, 다산학연구원장을 하면서 호남학 정립에 앞장섰다. 그가 남긴 ‘이을호 전집’ 아홉 권은 지금도 호남학의 바이블이다. 그는 생전에 호남학 연구재단을 못 만든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였다 한다. 그런데 호남학 연구재단 설립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경북은 한국국학진흥원을 안동에 설립하여 영남학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도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몇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다. 다시 역사의 시계를 돌려 500년 전으로 돌아

가자. 1510년에 장성에서 한 선비가 태어났다. 그는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겪으면서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자연에 묻혀 살며 후학을 키웠다.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절로/산 절로 물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아마도 절로 생긴 인생이라 절로 절로 늙어가리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은일의 선비로 부른 이 선비는 하서 김인후(1510~1560)이다. 그는 도화와 문장과 절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맑은 물에 떠 있는 부용꽃이었다. 그리고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호남의 선비이기도 하다. 2001년 퇴계 이황(1501~1570)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안동은 운봉 축제분위기가 되었다.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연이어졌다. 퇴계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퇴계에 버금가는 호남의 선비 김인후, 그의 탄생 500주년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 궁금하다. 추모 행사가 하겠지만 매스컴과 대중들이 얼마나 호응할까? 2010년은 남도 역사 문화에 있어 민주화와 인권, 한일 관계, 호남정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해이다. 이번 주말에는 남도인물 흔적 찾기를 하려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윤상원 생가를 둘러보고, 구례 매천사, 장성 필암서원도 다시 가보려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냥총 납탄 토양오염 심각...규제 절실

이번에 우리 전라도 영암, 장성, 보성 등에 순환수렵장이 생겼다고 한다. 수많은 멧돼지가 번식해 도심으로 자꾸 출몰하자 이걸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멧돼지 사냥을 위해 수렵장도 많이 허가해주었다고 한다. 해마다 전국에서 사냥꾼들이 총질을 해대는데 이때 전 국토에 뿌려지는 총알 즉 납탄이 얼마나 많으며 그걸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심각하다는 점이다. 납탄이 많이 떨어지는 산탄총이다. 이 총을 쏘면 지름 3mm짜리 작은 금속 알 수백 개가 뿌려져 나가는데 이 총알의 재질은 모두 납이다. 납은 유해성이 치명적인 중금속이라는 사실은 아이들도 안다. 국내에서 한 해 납탄 사용량은 600~700만 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게 무거운

자그마치 150톤 안팎이나 된다고 한다. 순환수렵장이 1982년부터 운영됐으니까 지난 19년간 어림잡아 3천 톤 가까이 되는 막대한 양의 납탄이 전국에 뿌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렵장에 뿌려진 납탄은 장기적으로 토양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질도 납 불독은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이미 20~30년 전부터 납탄을 규제하고 대신 철탄을 쓰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사냥총에 납탄이 많이 국토에 마구 뿌려지도록 방지할 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대책을 세워 이걸 막아야 할 것이다. <이충환·광주시 남구 구동>

無 等 鼓

경인년(庚寅年) 첫날이 밝았습니다. 무등고지기가 독자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에벤에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소서’라는 간곡한 뜻을 지닌 기도입니다. ‘에벤에셀(Ebenezer)’은 에벤(반석)과 에셀(뚝다)의 합성어입니다. 구약성경 구절에서 비롯됐지요. 블레셋인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사무엘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은 걸 기려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예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든 새해 첫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제발 올해엔 만사형통하기를 빌면서 말합니다. 최근에 삶 의 길을 잃었거나 터널에 갇혔다 싶은 사람의 마음은 더욱 절절하겠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뜻 같지 않고, 희망은 곧잘 실망을 낳기도 합니다. 남다른 각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환해지는 듯했던 길 또한 다시 어두워지고 갑작스레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백 없음을 야속 해하고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운 앞에 가슴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꿩이라고 믿었던 일이 뜻밖의 문제로 어긋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이것만은’ 하던 일이 이뤄져도 안됩니다. 구약성경 구절에서 비롯됐지요. 블레셋인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사무엘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자유를 되찾은 걸 기려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예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든 새해 첫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제발 올해엔 만사형통하기를 빌면서 말합니다. 최근에 삶 의 길을 잃었거나 터널에 갇혔다 싶은 사람의 마음은 더욱 절절하겠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뜻 같지 않고, 희망은 곧잘 실망을 낳기도 합니다. 남다른 각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에벤에셀



리게 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 이론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자욕이 따로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혼자 해왔다고 여겼던 일 가운데 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 통하기를 빌면서 말합니다. 최근에 삶 의 길을 잃었거나 터널에 갇혔다 싶은 사람의 마음은 더욱 절절하겠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뜻 같지 않고, 희망은 곧잘 실망을 낳기도 합니다. 남다른 각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기 고



임 재 택

황금 독수리 수명은 70년 이상이지만 생의 전부를 계속해서 기운차게 살지는 않는다. 태어나 20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부리는 굵는다. 어떻게 나머지 5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독수리 나이 스무 살 즈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주저 없이 깊은 산 속, 절벽 틈바구니를 찾아 자신의 부리와 깃털을 모두 뺏아버린 다음, 발톱과 부리마저도 바위에 문질러 뺏아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무려 50일 이상 바위에서 떨어지는 이슬만 먹고 살아간다. 그런 후 신기하게 다시 새 깃털과 날카로운 부리, 발톱이 자라기 시작해 웅장스런 독수리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성년의 나이에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변신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독수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생애에 고통을 감수하며 변신을 시도했던가?

거듭나는 2010을 위하여

세상을 산다는 건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이든, 위용을 자랑하며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든 간에 그리 만만치만은 않다. 스스로의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불안정성과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갖가지 위기를 또한 불확실 속에 잠복되어 있다. 더구나 급격한 사회변화는 적응하기까지 어려운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우리를 마치 시련대상으

로 삼는 기분이이다. 그렇다고 삶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만도 없잖은가. 황금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위용 뒤에는 빠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듯이 우리네 삶도 어느 시기에든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둔 채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경제·사회 환경의 혼란 속에 청년실업 문제가 양산되어 스스로를 구해내버리거나 패배주의에 젖어 미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잖아 보인다.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을 위해 찾아야만 했을 깊은 산, 높은 절벽의 생활이 두렵지 않았겠는가. 새로운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깃털을 스스로 다 뺏아버린 뒤 느꼈을 두려움과 발톱과 부리마저 바위에 문질러 뺏아내며 느꼈을 고통, 50일 동안이나 바위에서 떨어지는 이슬만 먹으며 출고 배고픔을 참아낸 인내를 가졌기에 낡고 구부러진 부리와 힘없는 발톱을 버리고 날카로운 부리와 힘찬 발톱을 얻었다. 황금 독수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오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정신으로의 재무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는 쉽게 회생 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으로는 호전됐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겨울날씨만큼이나 혹독하니 말이다. 우리 지역경제역시 뒤처리다. 그러나 어쩌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0년을 맞이할 일이다. 새해엔 60년에 한번 온다는 백호(白虎)의 기세처럼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새 로워질 수 있는 기개가 충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 <문태고등학교 교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